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의 인지 의미론적 연구* **

심지연
(고려대학교)

<Abstract>

Shim Ji-Yon. 2016. The cognitive semantics study on metaphor used in economic text. *Korean Semantics*, 51. This study aims to analyze metaphors used in economic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emantics, and the main focus is to investigat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Defining the analysis subject to include only economic texts broadcasted on radio in colloquial language, the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the aspects of metaphors used in economic texts with others in different fields.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taphoric aspects used in economic texts and those used in other texts of different areas, including science, athletics, and politics. As a result, metaphors used in colloquial economic texts show different metaphoric aspects, compared to those used in athletic and political texts. However, the analysis has also illustrated that, in terms of the expression and the purpose of use, there are a number of similarities between metaphoric characteristics used in economic texts and those used in scientific texts. Based on this finding, the study further analyzes metaphorical expressions used in colloquial economic texts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used in scientific texts in depth to see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7302)

** 또한 이 논문은 지난 2015년 11월 21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렸던 제6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그 날 이 논문에 대해 지정토론을 해주셨던 부산교대 이동혁 선생님과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what metaphorical characteristics and effects they have when used in texts of these particular areas respectively. The result is the following: abstract concepts used by a particular profession and jargons were difficult for others to understand. However, as the difficult scientific and economic concepts are now frequently used by laypeople as well, it has recently become common to metaphorically describe them as more concrete and simpler concepts because people have already understood and acquired them.

In light of this fact, it is easy to see that experimentalist theory conceived by G. Lakoff, which gave a rise to the field of cognitive semantics, has served the foundation of methods of metaphoric expressions described in scientific texts and economic texts. Scientific texts have made it possible to explain their complicated scientific concepts to the public by using metaphors since a long time ago. In fact, this same approach can be employed in (real-life) economics to explain specialized knowledge to readers(radio audience) as financial literacy has become common not only to experts, but also to the public. Furthermore, this method has been proven to be highly effective.

핵심어: 은유(metaphor),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 개념 은유(conceptual metaphor theory), 영상 도식 은유(image-schematic metaphor theory), 경제 텍스트(economic text), 체험주의 이론(experientialism), 사상(mapping), 근원 영역(source domain), 목표 영역(target domain), 틀(frame)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이 연구는 라디오에서 방송된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주된 대상으로 이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은유 표현의 양상 및 특징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은유 표현의 양상과 특징을 정치, 운동경기, 과학 텍스트와 같은 다른 종류의 텍스트에 사용된 은유 표현과 비교, 분석하여 서술하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분석한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은유 표현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다른 장르의 텍스트 중, 특히 그 은유 표현

양상이 경제 텍스트와 비슷하게 나타난 과학 텍스트와 비교하여 두 텍스트의 은유에서 나타나는 표현방식이 유사한 이유를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979년, 미국에서 Reddy의 ‘수도관 은유(conduit metaphor)’로 대두되어, Lakoff and Johnson(1980)에서 본격화된 인지미론을 기반으로 한 개념 은유는 이후 약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 1990년대 초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개념 은유의 관점에서 은유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레이코프와 존슨의 책 제목이기도 한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 We Live By)’라는 말처럼, 은유는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은유’에 대해 물으면 아직도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을 떠올리며 여전히 ‘은유란 시와 같은 문학작품에나 사용되는 특별한 표현법’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¹⁾

그래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은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은유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인지미론적 관점에서 은유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이 관점의 근간이 되는 ‘체험주의 이론’²⁾에서 본다면, 이미 은유는 생활 속 많은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일상생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문과 같은 생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연구를 위해 약 20여 년 동안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은유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그 대상이 생활 텍스트에서는 주로 정치, 운동 경기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려운 지식이나 전문적인 개념을 쉽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사용된 은유 표현을 분석한 연구는 과학 분야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³⁾ 연구의 측면에서는 ‘삶으로서의 은유’가 아니었

1)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은유 연구 대부분이 문학작품 안에서의 은유에 대한 수사법적인 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2) 체험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Lakoff(1987) 등에 잘 설명되어 있다.

3) 선행 연구 조사를 위해 국회전자도서관에서 국내에서 발간된 석, 박사학위 논문 약 254 편을

던 것이다. 연구의 측면에서도 진정 ‘삶으로서의 은유’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은유 표현의 연구 영역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은유가 사용되고 있는 여러 영역 중, 정치나 운동 경기 만큼이나 우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과학지식만큼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⁴⁾

과거 경제 텍스트는 학문적 성격이 강하여 주로 경제학을 연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직업군이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⁵⁾ 특히 ‘돈’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경제에 대한 지식이 학문이 아닌 개인의 운택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중적인 지식의 성격을 갖는 경제 관련 텍스트를 ‘생활 경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신문 및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신문이나 논문 자료에서 추출한 문어 경제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생활

검색하였고, 일반 학술 DB사이트에서 약 773 편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로, 국어학 및 언어학 분야뿐만 아니라 ‘은유’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모든 분야의 논문을 찾은 결과이다.

- 4) 사실, 경제와 관련된 표현에 사용된 은유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거의 선행 연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 주제를 정할 때, Lakoff and Johnson(1980)에서 경제 개념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표현들을 존 재론적 은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을 했다. 그리고 평소에 경제 관련 신문 기사를 읽거나 경제 관련 방송을 들으면서 경제와 관련된 표현이나 내용을 설명할 때 개념 은유로 분석이 가능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런데 선행 연구 조사를 해보니 은유와 관련된 학위 논문 254편 중 1편, 일반 연구 논문 773편 중 2편이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난 은유와 관련된 연구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영어학, 번역학, 코퍼스 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였다. 그런데 2013년 9월 연구를 시작하여 1년 동안 진행 하는 중에 경제학 논문을 대상으로 한 구본관(2014), 문어 경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제민경·구본관(2014)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두 연구 외에는 직접적으로 경제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제민경·구본관(2014)외에는 본 연구가 유일하게 경제 텍스트를 개념 은유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 5) 2009년 10월 9일에 방송된 ‘한글날 특집 MBC 실험다큐 말의 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구어 경제 텍스트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왜냐하면 방송 스크립트와 같은 구어 텍스트는 딱딱한 문어 텍스트에 비해 실제 살아 있는 언어 표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텍스트의 특성은 ‘사고란 근본적으로 신체화된 경험에서 유래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며, ‘선 인지적(先認知的)’이며 ‘비명제적’ 성격을 갖는 ‘체험주의 이론’의 관점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라디오에서 방송된 구어 경제 텍스트는 연구의 측면에서 ‘삶으로서의 은유’에 해당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에서 추출된 구어 경제 텍스트를 주된 연구 자료로 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으로는 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비전문가인 일반인 청취자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친절한 경제’는 청취자들이 어려워하거나 궁금해 하는 경제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는 코너인데,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개념 은유에서의 ‘사상(mapping)’의 방법이었다.⁶⁾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자료 수집을 해야 했다. 개별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일이 연구 과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라디오 방송 자료가므로 우선, 구어 자료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했다. 다행히 ‘손에 잡히는 경제’ 프로그램은 인터넷 팟캐스트 서비스로 오래 전에 방송된 내용까지 모두 다시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수월한 편이었다.⁷⁾ 6개월 동안 월요일부

6) 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있는 각 코너의 설명 중 ‘친절한 경제’ 코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보입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경제 관련 기사와 정보들,
잘 알면 힘이 되지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알아야 할 경제지식과 상식, 경제용어 등을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무엇보다 친절하게,
재치 있는 비유와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밑줄은 연구자)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6개월간의 방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중 1/4정도가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상의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본 연구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터 금요일까지의 평일 방송 중 ‘친절한 경제’ 코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스크립트를 만든 결과, 개념 은유의 방법으로 설명한 34개의 구어 경제 텍스트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집한 구어 경제 텍스트 자료 34개를 대상으로, 먼저, 구어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양상을 개념 은유의 근간이 되는 ‘틀(frame)’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때, 이미 어느 정도 개념 은유의 측면에서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치 텍스트, 운동경기 텍스트, 과학 텍스트와 같은 다른 분야의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표현과 비교, 대조하면서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나는 은유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구어 경제 텍스트와 비교하는 텍스트 중 하나인 과학 텍스트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식 전달의 측면에서 복잡한 과학 현상이나 개념을 독자(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은유의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전달하는 ‘은유적 사상(mapping)’의 설명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과학 텍스트 글쓰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 은유 이론에 토대를 둔 글쓰기 전략은 은유적 사상 방법을 이용한 널리 알려진 글쓰기 방법 중 하나이다.⁸⁾

이러한 이유로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의 양상을 여러 다른 텍스트들과 비교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하여, 과학 텍스트의 은유 표현과 구어 경제 텍스트에 사용된 은유 표현 방식이 유사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인지의미론적의 배경이 되는 레이코프의 ‘체험주의 이론’이 과학 텍스트나 경제 텍스트의 서술에 사용된 은유 표현 방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이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꽤 오래 전부터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과학 텍스트처럼, 최근 들어 전문가 집단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그 지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생활 경제 분야에서도 과학 텍스트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독자(청자)에게 개념 설명이 가능하며,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7) 현재 2011년 5월 9일 방송부터 팟캐스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 등으로 들을 수 있다.

8) 박영민(2003), 이동혁(2009) 등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 구어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양상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6개월의 평일 방송 동안 ‘친절한 경제’ 코너에서 개념 은유의 방법으로 경제 지식을 설명한 구어 경제 텍스트의 월별 빈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경제 지식을 개념 은유의 방법으로 설명한 빈도

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개수	7	9	6	4	3	5	34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코너에서는 경제 지식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써 개념 은유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표1>에 제시한 34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유의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라디오 스크립트가 토대가 된 구어 경제 텍스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개념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틀(frame)’에 해당하는 근원 영역이 되는 대상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 대상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추상적 현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구어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양상을 근원 영역에 따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분석 대상 구어 경제 텍스트 자료에 나타난 은유의 서술 방식과 표현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때 다른 종류의 텍스트 및 문어 경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특징도 함께 고찰하겠다.

2.1. 구체적 대상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는 경우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 대상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한 자료는 분석 대상 34개 중 24개의 자료였다. 이 중 몇 가지의 예를 제시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개념 은유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겠다.

(1) 2013/09/03(주파수 경매로 통신 가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가게의 위치입니다. 몹 좋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가 장사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정도는 좌우하죠. 이동통신 사업에서는요, 누가 좋은 주파수를 갖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번에 통신회사들끼리 주파수 따내기 경쟁을 한 건 누가 몹 좋은 가게를 분양받느냐와 하는 거와 비슷한 경쟁이었습니다.

(1)은 ‘주파수 경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면서 구체물인 ‘가게’이라는 근원 영역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 2013/09/05(인텍스펀드는 어떻게 주식을 편입하나요?)

...그 식당에서는 아예 천 가지 음식을 커다란 솥에 담아서 죽처럼 끓여 넣고 한 그릇씩 퍼 줘서 파는 겁니다. 음식을 그렇게 팔면 맛이 다 사라지지만 주식 종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그 효과가 들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인텍스펀드가 그런 원리입니다.

(2)는 인텍스펀드의 주식 편입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는 추상적 개념인 ‘주식 종목’을 우리에게 익숙한 구체물인 ‘음식’이라는 근원 영역을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인텍스펀드의 원리에 대해 청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2013/10/07(보험회사가 망했을 때 은행처럼 예금자보호 5천만 원까지 가능한가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문을 닫으면, 마치 난파선에 승선한 승객들을 다른 배로 옮겨 싣듯이, 다른 보험회사가 그 망한 보험회사의 가입자들을 자기 회사 고객으로 인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관행입니다.

(3)은 망한 보험회사를 ‘난파선’, 고객을 ‘승객’이라는 근원 영역을 이용하여 보험회사가 망했을 때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처리 방법을 청취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 (4) 2013/11/28(가전제품 살 때 만든 제휴 신용카드는 그냥 폐기해도 될까요?)
 …신용카드도 마치 자명종 시계 같아서 버튼을 눌러서 끄지 않아도 한 시간 정도 지가 울다울다 지치면 저절로 꺼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4)에서는 신용카드를 ‘자명종 시계’라는 근원 영역으로 대응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자명종 시계가 울려도 그대로 두면 꺼지는 것과 같이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두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내용을 청취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 (5) 2014/01/07(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 왜 유지비가 늘어나는가?)
 …외환보유액이 요즘처럼 사상 최대가 되면, 마음이 든든하긴 하지만, 또 이 유지비도 어쩔 수 없이 사상최대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군이 한 300만명쯤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든든하긴 하겠지만, 그 300만명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려고 하면 유지비가 국방비가 더 많이 들겠죠.

(5)에서는 외환보유액을 ‘국군(군대)’라는 근원 영역에 대응함으로써, 많은 수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과 같이 외환보유액이 많아지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6) 2014/01/15(건물에 붙어있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찾아올 때,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아저씨도 옷을 안 돌려주죠. 세탁소 어딘가에 내 옷이 인질로 잡혀 있는건데, 물론 그 옷의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긴 하지만, 이 세탁비를 주기 전까지는 세탁소 아저씨가 내 옷에 대해서 계속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런겁니다.

(6)에서는 ‘건물의 유치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옷’이라는 구체적인 근원 영역을 이용하여 ‘세탁소에 잡혀 있는 옷’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하여 어려운 경제 개념인 ‘건물의 유치권’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의 예문(1)~(6)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파수’, ‘주식’, ‘망한

보험회사’, ‘신용카드’, ‘외환보유액’, ‘건물’ 과 같이 설명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에 대해 ‘가게’, ‘음식’, ‘난파선’, ‘자명종’, ‘국군(군대)’, ‘옷’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여 경제 현상을 표현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여, 다른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와는 달리, 특정 대상에 치우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대상을 좀 더 상위 범주로 묶는다면 아래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사용된 근원 영역들의 상위 범주

상위 범주(frame)	사용된 근원 영역 ⁹⁾
부동산	가게, 집(주택, 빌라), 빵집
음식	음식, 커피, 피자, 김장배추
돈	화폐, 용돈
교통수단	난파선, 자동차, 타이어
전쟁	국군, 군대
의류	옷

여기서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부동산, 음식, 돈, 교통수단, 전쟁, 의류’는 개념 은유를 형성하는 일종의 ‘틀(프레임, frame)’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틀’은 청취자로 하여금 목표 영역에 해당하는 낯설고 추상적인 경제 현상들을 인지적 사고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고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¹⁰⁾ 그러므로 우리에게 익숙한 구체물이거나, 우리가 이미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인지적 ‘틀’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주된 이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지의미론의 바탕이 되는 ‘체험주의’와도 연결된다. 가령, 예문(1)의 경우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틀을 이용하게 되고, 우리는 ‘가게 분양’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주파수 경매’라는 경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9)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 중, 예문 (1)~(6)과 같은 상위 범주(frame)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원 영역도 함께 <표2>에 제시하였다.

10) 틀(frame)에 대해서는 Fillmore(1982) 참조.

특히, 위의 <표2>에 제시된 틀 중에서 ‘전쟁’ 프레임은 아래 예문과 같이 정치 텍스트와 운동 경기 텍스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¹¹⁾

- (7) 동경 올림픽은 올림픽 경기가 마치 스포츠의 전쟁과 같은 양상을 띠었고. (1964.10.24.)
- (8) 초읽기 올림픽 개막 앞으로 2일 출전전야의 병사처럼(1984.7.27.)
- (9) 이에 따라 자기 직할 부대이자 자민련내 현역의원의 다수를 점하는 충청권 의원들이...(시사저널 99.9.30)
- (10) 고소당한 이신범 의원, DJ친인척. 참모 ‘저격’ 노려(시사저널 99.7.8)

예문 (7)과 (8)은 ‘전쟁’, ‘출전(出戰)’, ‘병사’라는 근원 영역으로 운동 경기 텍스트에 표현된 경우로, ‘스포츠는 전쟁이다’라는 개념 은유를 형상화하는 ‘전쟁’ 프레임은 독자의 인지체계에서 만들어내서 운동 경기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게 만든다. 또한 예문 (9)과 (10) 역시, ‘(직할) 부대’, ‘참모’라는 근원 영역을 이용하여 정치 텍스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역시 ‘정치는 전쟁이다’라는 개념 은유를 형상화하는 ‘전쟁’ 프레임을 독자의 인지체계에서 구성하게 한다.

한편, 구체적 대상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다른 텍스트에서 찾아본다면, 정치 텍스트, 운동경기 텍스트, 과학 텍스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과학 텍스트에 비해 정치 텍스트와 운동경기 텍스트의 경우, 낯선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아래 예문과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현상이나 사실의 강조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유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¹²⁾

- (11) 그러나 자민련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여당의 표밭을 잠식하자 신한국당은 신보수론의 칼을 뽑아들었다.(시사저널:333:40)¹³⁾

11) 예문(7)은 심지연(2015:119), 예문(8)은 심지연(2015:128)에서 인용하였고, 예문(9)와 (10)은 배승호(2001:270)에서 인용하였다.

12) 이와 같이 은유를 이용한 서술 방식과 표현 양상에 대해서는 2.3에서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13) 임혜원(1997:102)에서 인용.

- (12) 여당 방패 뚫는 '죽창' 이부영(사사저널 99.8.26)¹⁴⁾
 (13) 핸드볼 '코트의 폭격기' 윤병순...혼자 15골(1984.8.10.)
 (14) '인간탄환' 가리기 1백m예선 불꽃 대결 (1996.7.26.)¹⁵⁾

그러므로 예문 (11)~(14)의 경우, 전쟁 프레임의 하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무기'와 관련된 틀이 우리의 사고 과정에 형성되어 근원 영역의 '칼', '죽창', '폭격기', '탄환'으로 나타나,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의미를 목표 영역을 통해 극대화 하여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만들어준다.

과학 텍스트의 경우, 위의 예문 (1)~(6)의 구어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상당히 다양한 구체적 대상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구어 경제 텍스트와 과학 텍스트의 서술 성격이 전문적 영역의 일상적 언어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은유의 성격도 비슷하다 볼 수 있다.¹⁶⁾

- (15) '...사람들이 좌석 버스를 탈 때 많은 빈 자리를 놓아 두고 모르는 사람 옆자리에 붙어 앉으려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자. 만약 두 전자들이 다른 오비탈에 들어가면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약해져서 더 안정해질 것이다...'(이원식 외 1991:114)
 (16)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일을 이용하여, 차가운 열원으로부터 따뜻한 열원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를 열펌프라고 한다.…… 열펌프는 물펌프가 물을 높은 위치로 퍼올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열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열이 흐를 수 있게 해 준다.(김영민 2012:166)

위의 예문(15)와 (16)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 텍스트에서는 '버스', '물펌프'와 같은 다양한 구체적 대상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근원 영역을 이용하여 어려운 과학 개념에 해당하는 목표 영역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4) 배승호(2001:273)에서 인용.

15) (13), (14)의 예문은 심지연(2015:128)에서 인용.

16)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2.2. 추상적 대상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는 경우

앞 절에서 살펴본 경우와 달리, 행위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과 같은 추상적 대상을 구어 경제 텍스트의 은유에서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자료 34개 중 10개가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2013/09/16(ELS 상품 가입할 때 설명하는 ‘낙인’이 뭔가요?)

엄마가 시장 갔다 올 동안 너희 둘이 놀다가 유리창만 안 깨고 있으면 도너츠 하나씩 사줄게 뭐 이런 약속. 너희 둘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20등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아빠가 자전거 사준다. 그 대신 그 이하로 떨어지면 한 달 동안 아빠 구두 닦아라. 뭐 이런 약속이 바로 ELS하고 비슷한 겁니다...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애들이 그 깨뜨리지 말라고 한 유리창을 깨뜨린 그 사건. 20등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자전거를 사주는데, 20등 아래로 내려가 버린 그 사건. 바로 도저히 그런 웬만하면 잘 안 벌어질 것 같더라고 믿었던 그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ELS에서는 ‘낙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18) 2013/09/17(개인정보 이용통지메일이 최근 갑자기 왜 여러 회사에서 많이 오나요?)

...기업들이 밀린 숙제들을 급하게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19) 2013/09/24(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왜 신용카드도 만들라고 하나요?)

...우선, 카드회사하고 은행은요 형제 관계입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약속’, ‘숙제’, ‘형제 관계’와 같은 행위나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근원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절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은 특정 대상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위의 (17)~(19) 예문에서 사용된 근원 영역의 상위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이들 근원 영역을 구성하는 틀(frame)을 나타내보면 아래 <표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 사용된 근원 영역의 틀

틀(frame)	사용된 근원 영역
규칙	약속
학교	숙제
가족	형제 관계

특히, <표3>에 제시된 틀 중에서 ‘가족’ 프레임은 정치 텍스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¹⁷⁾ Lakoff(2004/2014)에서는 미국 정치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미국 혁명의 딸들’과 같이 국가를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형상화 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 틀이 공화당 및 민주당의 선거 운동 문구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모형’과 ‘자상한 부모의 모형’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표3>의 틀 중에서 ‘학교’ 프레임 역시 정치 텍스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년 안철수의 대선출마연설문에 나타난 정치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인 권익수(2012:21)에서 ‘학교’ 프레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아래의 예문과 같이 발견할 수 있다.

(20) 여러분이 제게는 스승입니다.

(21) 저에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20)과 (21)의 예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교’ 프레임은 정치가를 ‘학생’, 국민을 ‘스승(교사)’라는 근원 영역으로 형상화 시켜 독자(청자)로 하여금 그 목표 의미를 환기시킨다. 이것을 (18)의 경제 텍스트에 적용시켜본다면 기업이 ‘학생’, 고객이 ‘교사’가 되어 고객에게 꼭 알려야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 목표 의미를 청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 텍스트의 은유에서는 앞 절의 경우와는 다르게 정치나 운동 경기 텍스트의 은유와는 다르게 눈에 안 보이는 행위나 추상적 개념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¹⁸⁾ 그것은 추상적이고 전문적

17) 이 ‘가족’ 프레임은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의 정치 텍스트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18) 과학 텍스트에서 추상적 대상을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여 은유를 표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

인 개념을 주로 은유적 표현으로 서술하는 과학 텍스트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3.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의 표현 방식 양상

지금까지 구어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틀(frame)을 중심으로 은유를 구성하는 근원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틀’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고하기 위해 구성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의 2.1과 2.2에서 살펴봤던 틀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들이 어떻게 은유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양상이 다른 텍스트에서 표현되고 있는 은유의 양상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구어 경제 텍스트 자료는 대부분 경제 현상이나 경제 개념을 청취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의 서술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은유의 표현 방식 역시 ‘설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2) 2013/10/04(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은?)

…처음에는 영켜있는 차들 중에서 운전자나 택시 운전사나 특히 모범 운전자 분들이 나와서 신호등은 일단 무시하고 ‘이 차는 여기 좀 서 있고요, 이 차는 얼른 건너가세요.’ 이렇게 영킨 차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 경영에 비유하면 워크아웃입니다....아, 안되겠다 진짜 경찰을 부르자 이렇게 하는 걸 기업에서는 법정 관리라고 합니다.

은 경우 정도이다.

… 그러나 사실, 사투리 언어가 그렇듯이 품종마다 별개의 기원을 지닌다. 사람은 약간의 구조 차이를 지닌 개체를 보전하고 거기에서 씨를 얻는다...(Darwin 1859:40, 김명민 2012:210에서 재인용, 밑줄은 본 연구자)

이 예문은 찰스 다윈이 동물 품종이 진화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투리 언어’를 근원 영역으로 한 ‘언어’ 프레임을 독자로 하여금 형성하게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2)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개념을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는 교통정리이다]라는 개념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개념을 서술하기 위하여 [워크아웃은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다]와 [법정관리는 교통경찰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다]의 좀 더 세부적인 두 개의 개념 은유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근원 영역이 되는 ‘교통경찰의 교통정리’에는 [+강제성] 자질이 포함되는 점이 다르다.

(23) 2013/12/10(외환보유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건 군대하고 비슷합니다.…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비용이 들듯이 외환보유액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달러를 사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주고 빌린 돈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많아지면, 나라 빚도 같이 늘어납니다. …… 그래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려고 나라에서에서 비용 들어가며 한 곳에 군인들을 모아놓듯이, 외환보유액도 브라질 유전이나, 런던의 부동산이나 이런 형태로 갖고 있으면 값어치가 오를 것도 같지만, 언제든지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자도 얼마 안 주는 미국 채권, 일본 채권, 유럽 채권 뭐 이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20대 젊은이가 모두 군인은 아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 돈이 다 외환 보유액은 아닙니다. 은행이나 기업들도 자기 금고에 달러를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돈을 주고 사들여서 따로 관리하는 달러 이것만 외환 보유액입니다. …

(23)에서도 외환보유액의 개념에 대해서 [외환보유액은 군대이다]라는 개념 은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군대를 모아놓듯이,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형태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고 또 한 번 개념적 사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20대 젊은이가 모두 군인은 아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 돈이 다 외환보유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여 외환보유액의 개념을 군대라는 근원 영역을 이용한 개념 은유적 설명 방법을 이용해 여러 번 청취자가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는 대부분 독자(청자)에게 낯선 추상적 현상이나 개념을 설명하여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정치 또는 운동 경기 텍스트에 표현된 은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치나 운동 경기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는 아래 예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 이미 독자(청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치 현상이나 운동 경기의 참여자 또는 행위를 강조하여 독자(청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24) 하석주의 숫으로 포문을 열었고(1996.7.25.)

(25) ...유정혜의 마지막 블로킹으로 숨막히는 격전의 종지부를 찍었다.(1976.7.26.)¹⁹⁾

(26) 국회의원회 여성 표발 김매기(시사저널 1996, 336호 12쪽)²⁰⁾

(27) 정치개혁 뜨거운 감자 중선거구제 살바 싸움(시사저널 1999.9.16.)²¹⁾

(24)~(27)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은유는 모두 ‘득점을 언다’, ‘경기가 끝나다’, ‘선거 운동을 하다’, ‘지루하게 신경전을 벌이다’라는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은유 표현은 위의 (22)나 (23)의 경우에서처럼 낯선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상황을 강조 및 극대화시켜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개념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본고의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보다는 제민경·구본관(2014)에서 분석한 문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표현이 (24)~(27)에서 분석한 은유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8) (주식 시장에서) 모래성 장세?(매경 2013.10.16.)²²⁾

(29) 경기침체 ‘직격탄’...골프장 18곳 등 레저中企 구조조정 급증(한경 2013.11.9.)

(30) 여기에 세계개편안 발표 대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이다...(매경 2013.10.1.)

19) (24)는 심지연(2015:125), (25)는 심지연(2015:119)에서 인용.

20) 임혜원(1997:91)에서 인용.

21) 배승호(2001:265)에서 인용.

22) (28)~(30)은 제민경·구본관(2014)에서 인용.

위의 예문 (28)~(30)은 각각 ‘거래대금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주가 상승’, ‘구조조정’, ‘세금부담’이라는 상황의 목표 영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극대화시켜 사용된 은유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들을 비교해보면 제민경·구본관(2014)에서 분석한 문어 경제 텍스트가 정치, 운동경기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와 서술 방식, 표현 양상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다음 예문과 같이 과학 텍스트에 사용된 은유의 표현 방식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구어 경제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유와 비슷한 면이 많다.

- (31) 방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당신이 이 방을 가로지른다고 가정하자. 뻘뻘라던 힘 안들이고 방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똥똥한 사람이라면 이리저리 부딪히며 힘겹게 나아갈 것이다. 만일 이 방에 동창들이 모여 있고, 당신이 몇 년 만에 모습을 나타냈다면 악수하고 껴안고하다 방을 나서면 완전히 지쳐버릴 것이다. 방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바로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힉스 입자이고, 방을 가로지르는 사람은 쿼크 등 다른 기본 입자에 해당한다. 지나가는 사람이 똥똥해서 자주 어깨를 부딪친다든지, 껴안고 반가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힉스 입자와 기본 입자의 상호작용을 비유한 것이다. 각각의 기본 입자는 공간에 퍼진 힉스 입자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때문에 어떤 입자는 보다 쉽게 움직이고 어떤 입자는 움직이는 데 힘이 많이 들게 된다.(중앙일보 2002.02.17, 이동혁 2009:258 재인용, 밑줄은 본 연구자)

(31)은 ‘힉스 입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의 방식을 이용하여 서술한 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쓴이는 [우주 공간은 방이다], [힉스입자는 방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다]라는 개념 은유를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22), (23)에서 제시한 구어 경제 텍스트 예문의 표현 방식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과학 텍스트에서 개념 설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은유의 서술 방식과 본 연구 자료에 사용된 은유의 서술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³⁾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은유의 표현 방식이 비슷하

23) 앞에서 이미 보인 예문 (15), (16)의 과학 텍스트에서 나타난 은유 표현 역시 (31)과 같은 은유의 표현 방식을 보이고 있다.

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 장에서 분석해보겠다.

3. 구어 경제 텍스트와 과학 텍스트의 은유에서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 유사한 이유

구어 경제 텍스트와 과학 텍스트는 모두 특수한 개념이나 현상을 독자(청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앞 장에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 방식에서의 공통점이 생겨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전문 영역의 일상적 언어화

경제 영역과 과학 영역은 애초에 전문가 집단만이 그 지식을 공유하였던 분야이다. 그러나 산업 혁명과 시민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만이 공유하던 지식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로 그 공유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양상은 이 두 영역에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우선, 경제 영역의 경우,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돈’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지식이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개인의 윤택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 영역과 일상 영역의 교집합에 해당하며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에 해당하는 구어 경제 텍스트를 ‘생활 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식은 신문 및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전달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 역시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의 스크립트이므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제민경·구본관(2014:3~4)에서는 ‘전문 영역의 일상적 언어화’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은유의 과정을 거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이에 해당하는 구어 경제 텍스트의 은유 표현으로

24)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런 점에서 경제 현상의 언어화의 한 양태인 경제 전문 용어는 전문 영역에 속해 있으면

아래 예문(32)를 들 수 있다.²⁵⁾

(32) 2013/10/15(경제성장률 0.1% 둔화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아빠 월급이 1% 줄었다면 확 다가오죠. 아빠 월급은 300만원이니, 300만 원의 1%인 3만원이 줄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확 다가오는데, 경제 성장률이 0.1%이 줄었다고 하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충격인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경제학의 전문 용어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되면서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 쉬운 이해를 위한 설명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32)와 같이 [경제성장률은 아빠 월급이다]라는 개념 은유적 사상을 통해 독자(청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경제 개념을 쉽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 영역 역시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과학자들만이 공유하던 지식을 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침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²⁶⁾ 그래서 주로 과학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 은유는 과학 교육에서 추상적이고 어려운 과학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과학 지식이 대중화됨에 따라 경제 분야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뿐만 아

서도 끊임없이 일상의 언증들과 소통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메타 텍스트가 생산된다.

경제 현상의 언어화에서 촉발되는 일상성과 소통의 요구, 은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경제 현상을 이론화하고 이를 언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보편적 경험에서 근원 영역을 채택하게 되고,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의 사상(mapping)으로 이루어지는 은유는 전문 영역의 그것을 일상의 그것으로 이끌어오면서 확장시키고, 동시에 드러내지 않은 것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다. 일상적 개념 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므로 은유의 과정을 거친다. 즉, 경제 현상의 언어화는 전문성과 일상성의 소통 과정을 보여 주며, 이 과정에서 은유는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범주화로서 언어가 지니는 창조력을 드러내 준다…

25) 예문 (32)외에 이미 예문으로 보인 자료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34개의 구어 경제 텍스트 자료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26) 이에 대하여 김영민(2012:15)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학에서의 비유에는 설명적 비유와 발견적 비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비유는 대개 설명적 비유이다. 설명적 비유는 주로 어떤 추상적이거나 난해한 과학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나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개념 은유의 설명 방법으로 과학 지식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²⁷⁾

- (33) 달의 표면에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는 칼로 자른 듯이 반듯한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며, 놀랍게도 어두운 부분의 중간중간에 밝은 점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이 밝은 점들은 분명히 밝은 부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뿐 아니라 어떤 것은 밝은 부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점들은 그 크기와 밝기가 점점 커지다가 한두 시간쯤 뒤에는 밝은 부분과 완전히 합쳐졌으며 동시에 밝은 부분의 범위도 점점 넓어졌다. 그러는 동안 어두운 부분 쪽에서는 새로운 밝은 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이들은 점점 커지다가 다시 밝은 부분과 합쳐지곤 하였다. 그러면 지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태양이 막 떠오를 때 높은 산의 꼭대기에는 태양의 빛이 도달하므로 밝게 빛나지만 밑의 평지는 아직 그림자 속에 묻혀 있는 수 있지 않은가? 또 태양이 점점 떠오름에 따라 산의 더 많은 부분이 밝게 빛나게 될 것이고, 결국 태양이 완전히 떠오른 후에는 평지나 언덕이나 할 것 없이 비치게 되므로 완전히 연결된 한 덩어리의 밝은 부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달은 어떤 곳은 산과 같이 높이 솟아 있고 어떤 곳은 폭 빼여져 있어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다(김영민·박승재 2001:161~162).

(33)은 갈릴레이가 ‘지구의 모습’을 근원 영역으로 하여 목표 영역인 ‘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글인데, 개념적 사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달의 뒷면의 모습까지 예상하여 서술한 글이다. 몇 세기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현대인의 시각에서 살펴보아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달의 모습’에 대하여 개념 은유적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에서는 아이디어에 관해 이야기하는 은유적인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 개념화를 모색할 수 있다(김영민 2012:290). 여기서 좀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이라는 전문 영역이 학습자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상적 언어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이와 같은 서술로 쓰여진 책이 정재승의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2011), 최재천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2006) 등이 해당된다. 이 책들의 주된 독자는 고졸 학력 이상의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다.

3.2. 독자(청자)의 특징

우선, Moriarty(1997), 박영민(2003), 이동혁(2009) 등에 언급되어있는 ‘예상 독자의 설정’을 청자의 범위까지 확대한 심지연(2013:23~25)의 4가지 독자(청자) 부류는 다음과 같다.

(34) 예상 독자(청자)의 설정

- ① 일상적 수준의 예상독자(청자): 필자(화자)가 쓰거나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층. 즉, 필자(화자)가 쓰거나 말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
- ② 사회화 이전 단계의 예상독자(청자): 필자(화자)가 쓰거나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하여 학습 과정에 있는 학생들
- ③ 사회화 단계의 예상독자(청자): 필자(화자)가 쓰거나 말하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일반적인 이론 설명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독자(청자)
- ④ 탈사회화 단계의 예상독자(청자): 필자(화자)가 쓰거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필자(화자)의 글이나 말에 대한 비판도 가능한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독자(청자)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독자(청자)들이 속하는 부류는 ‘일상적 수준의 예상독자(청자)’, ‘사회화 이전단계의 예상독자(청자)’가 대부분이다. 이들 부류는 경제학, 과학 등의 전문적 분야의 지식을 대중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부류는 이미 습득하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적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3.1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전문 영역의 언어가 대중적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이 바로 ‘개념 은유’를 이용한 설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3.1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경제학이나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적 수준의 예상독자(청자)들이 많다. 또한 과학 분야의 경우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과목이기에 사회화 이전 단계의 독자(청자)도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경제 텍스트와 과학 텍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독자(청자)의 층이 비슷하다는 점도 두 분야의 텍스트에서의 은유 표현 방식이 유사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 은유 표현을 대상으로 인지의미론적인 관점에서 그 표현 양상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히 구어 경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양상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정치, 운동경기, 과학 등의 다른 분야의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 은유들과 비교하여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표현들이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의의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구어 경제 텍스트 자료에 나타나 있는 은유 표현들은 그 근원 영역이 다른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표현과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 분포하고 있고, 이를 형성하는 프레임 역시 정치나 운동 경기 은유가 전쟁 프레임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과 다르게, 여러 프레임이 골고루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술 방식에서 정치나 운동 경기 텍스트에 사용된 은유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어 경제 텍스트에 사용된 은유는 낯선 경제 개념이나 현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의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밝힐 수 있었다. 이것은 학습자를 위해 주로 과학 개념의 설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학 텍스트의 은유와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그러한 공통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우선, 구어 경제 텍스트의 경우, 고도의 산업사회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경제학이라는 전문적인 지식이 일반인들에게 일상어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과학 텍스트의 경우에도 학습자들이 과학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일상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상황이 비슷한 은유 표현 방식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지식을 주로 접하는 독자(청자)의 부류가 ‘일상적 수준의 독자(청자)’, ‘사회화 이전 단계의 독자(청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이유였다.

참고문헌

- 강원국(2013), 『대통령의 글쓰기』, 서울: 메디치미디어.
- 구분관(2014), 「경제학 학술 논문 텍스트의 특성과 창의성」, 『텍스트언어학』 (텍스트 언어학회) 36, 41~77.
- 권익수(2012), 「책임, 공감 진심, 그리고 새로운 미래: 안철수의 대선출마연설문에 나타난 정치 프레임 분석」, 『언어와 언어학』(한국외대 언어연구소) 57, 1~26.
- 김기수(1992), 「은유의 언어 구조」, 『언어과학연구』(언어과학회) 9, 41~53.
- 김영민·박승재(2001), 『비유론과 과학 교육』, 서울: 원미사.
- 김영민(2012), 『과학교육에서 비유와 은유 그리고 창의성』, 서울:북스힐.
- 김영수(2003), 「경제기사문에 나타난 한국어, 영어 은유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2010), 「개념적 은유를 촉발하는 언어 표현」, 『언어과학연구』(언어과학회) 54, 21~40.
- 김형석·주세형(2013), 「경제학 분야 학술 텍스트의 특성 연구」, 『한국작문학회 제29회 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민(2003), 「과학영역의 작문에서 예상독자 유형과 은유의 전략」,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16, 189~224.
- 박영순(2000), 『한국어 은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순(2006), 「은유 연구의 성과와 방법론」, 『한국어 의미학』(한국어 의미학회) 20, 1~28.
- 배승호(2001), 「정치와 관련된 은유 표현」,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261~277.
- 신선경(2009), 「자연과학 텍스트에 나타난 유추와 은유: 개념구조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한국어 의미학회) 29, 133~152.
- 신진원·박기성(2011),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한국번역학회) 12-2, 129~155.
- 심지연(2009), 「국어 관용어의 인지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심지연(2013), 「개념 은유 이론을 이용한 교양 글쓰기 및 말하기 수업 방안 연구: 이공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0, 1~41.
- 심지연(2015), 「전쟁 도식 은유의 역사적 연구: 근현대 시대에 발행된 운동경기 기사문을 대상으로」, 『한국학연구』(고려대 한국학 연구소) 52, 101~136.
- 이동혁(2009), 「개념적 은유 이론에 기반한 글쓰기 전략 교육에 대하여」, 『한국어학』(한국어학회) 44, 245~272.
- 이병주 외(2007),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개념을 통한 프레임 분석: ‘사학법 개정’ 관련 갈등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한국언론정보학회) 39, 385~427.

- 이원식·한인섭·윤용(1991), 『고등학교 화학』, 서울: 교학사.
- 임지룡(1995), 「은유의 인지적 의미특성」, 『한국학논집』(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2, 157~176.
- 임지룡(1996),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의미분석」, 『국어교육연구』(국어교육학회) 28, 117~150.
- 임지룡(1997), 『인지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지룡(2002), 「기본 감정 표현의 은유화 양상 연구」, 『한국어학』(한국어학회) 17, 135~162.
- 임지룡(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한국어 의미학회) 20, 29~60.
- 임혜원(1997), 「선거 기사문에 나타난 은유: [선거는 전쟁이다]」, 『담화와 인지』 4-1, 담화인지언어학회, 85~110.
- 정재승(2011),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서울: 아크로스.
- 제민경·구분관(2014), 「경제 현상의 언어화를 통해 본 은유의 담화 구성력」, 『한국어 의미학』(한국어 의미학회) 43, 1~31.
- 최재천(2006),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서울: 효형출판.
- 최운호·강범모·차재은(2006), 「코퍼스를 이용한 은유 표현의 추출과 어휘데이터베이스의 확장 연구: 경제 기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미학』(한국어 의미학회) 20, 257~279.
- Evans, V and Green, M(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The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역(2008), 『인지언어학 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 Fillmore, C.(1982), Frame semantics. In Li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 Goatly, A.(1997), *The Language of Metaphors*, London: Routledge.
- Lakoff, G. and Johnson. M.(1980/2003), *Metaphor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역(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서광사. / 노양진·나익주 역(2006),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서울: 박이정.)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기우 역(1994), 『인지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 Lakoff, G.(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Chelsea Green Publishing. (유나영 역(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삼인./ 유나영 역(2015), 『10주년 전면개정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와이즈베리.)
- Moriarty, M.(1997), *Writing science through critical thinking*, Sudbury, Mass.: Jones & Bartlett Publishers.(정희모·김성수·이재성 역(2008), 『비판적 사고와 과학 글쓰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Peña, S.(2003), *Topology and Cognition: What Image-schemas Reveal about the Metaphorical of Language of Emotions*, Lincom Europa. (임지룡 · 김동환 역(2006), 『은유와 영상도식』, 서울: 한국문화사.)
- Reddy, M.(1979),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Metaphor and Thought*, ed. by Ortony,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Searle, J. R.(1993), Metaphor, In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심지연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자 우편: luciene@naver.com

원고 접수일: 2016. 03. 10.

원고 수정일: 2016. 03. 25.

게재 확정일: 2016. 03. 28.